

통치 편의따라 1부21군1도 재편...수탈경제 기반 마련

(제주도)

국가기록원과 함께하는 남도 근대화 탐사



(전남편)

2. 1914년 일제에 의한 군·면 통폐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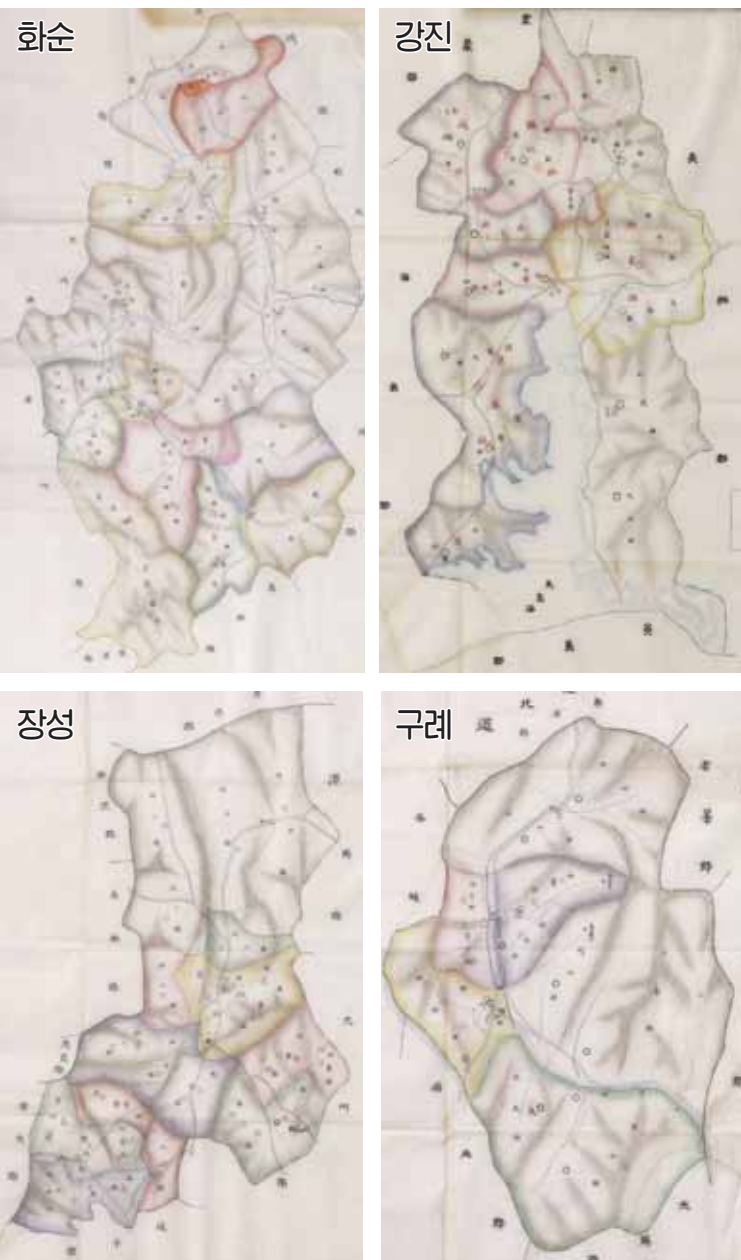
40방리 1만호 기준...現 나주·담양·화순 구획

서남해 거점 진도·하동 경계 광양 지형 난해

기준미달 여수 등 11곳 인구 밀도 높아 존치

郡 이후 面 폐합...광주 40개 면→15곳으로

통폐합 이후 군별 도면



일제는 조선 반도를 삼킨 뒤 본격적인 행정구역 재편에 나선다. 강제병합 1년 뒤 토지조사사업(1911~1917년)을 시작해 어느 정도 그 성과가 드러난 1913년 면적, 호수, 인구를 기준으로 도내 부·군·면의 재편성에 들어갔는데, 이 도면은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폐합 후 각 군을 묘사한 것이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이들 전남 군 지역 도면 중 일부 군의 도면은 유실됐다.



일제강점기 초반으로 추정되는 목포역 주변을 담은 사진. 아직 간척사업이 완료되기 전의 모습이다.

조선, 그리고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전남의 행정구역은 역사적·지리적 조건의 큰 영향을 받아 구분됐다. 하지만 일제는 이러한 역사를 인위적으로 '근대적' 기준으로 강제병합시킨다. 이 조치는 통폐합 대상이 되는 지역의 엄청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추진됐으며, 결국 그로 인해 지금의 전남도 행정구역이 탄생하게 된다.

우선 1925년 발간된 전남도의 '도세일번'을 살펴보자. 국가기록원이 소장중인 이 서적은 통상적인 통계자료와 함께 전남도의 역사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1896년 1년 전 23부를 13도로 개정한 뒤 전라도가 둘로 나뉘어 전라남도의 도청이 광주군에 설치됐다는 것은 이미 설명했다. 1895년 23부제가 도입되면서 기존 8도 내 목·부·군·현의 명칭이 폐지되고 군이 생겨났다. 이 군이 전주부, 남원부, 나주부, 제주부 등 23부의 밑에 자리하게 된다.

1896년 완도·돌산·지도 등 3개 군이 증설, 영남·강진·해남·장흥 등 4개 군에 속한 각 도서를 완도군, 흥양·무안·순천·광양 등 4개 군에 속한 도서는 돌산군으로 각각 편입됐다. 나주·영광·무안·부안·만경 등 5개 군의 도서는 지도군에 이속됐다. 1897년 순천의 울촌·여수·삼일·소리면 등을 합쳐 여수군이 생겨났고, 무안군이 무안부가 됐다. 이후 10년간 이러한 구역이 유지됐으며, 1906년 전남 소관이었던 흥덕·고창·무장 등 3개 군이 전라북도, 전북 소관인 구례군이 전남으로 각각 바뀌면서 지금의 전남·북의 경계가 그려졌다. 2년 뒤인 1908년에는 목포군과 낙안군이 폐지되면서 각각 곡성군과 순천·보성군으로 합쳐졌고, 1910년 무안부는 목포부로 명칭이 변경됐다.

1896년 전남의 1목32군은 이러한 구조조정을 거쳐 한일 강제병합 바로 전 1부28군(248면)이 됐다. 하지만 일제는 조선 반도를 삼킨 뒤 본격적인 행정구역 재편에 나선다. 강제병합 1년 뒤 토지조사사업(1911~1917년)을 시작해 어느 정도 그 성과가 드러난 1913년 면적, 호수, 인구를 기준으로 도내 부·군·면의 재편성에 들어갔다.

국가기록원은 1913년부터 2년간 전국 13도의 부·군·면의 폐합에 관련된 문서철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전남과 관련

된 내용만을 걸러내 정리하고자 한다. 모두 30여 가지의 이 서류는 이번 지면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이다.

우선 1913년 총독부는 전라남도에도 소재한 모든 기관을 통해 이 폐합으로 발생하는 동요와 소란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보면 동북군과 능주군이 화순군으로 합병되면서 이들 지역 양반, 유생 등의 지역 유지들이 선동해 반대의 소리가 있지만, 큰 동요는 없다고 헌병대장이 조선총독부에 보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목포부, 곡성군수, 곡성경찰서장, 순천헌병대장 등 거의 모든 행정·경찰·헌병대 등의 기관에서 행정구역 변화에 대한 민심을 보고하고 있다. 그만큼 한일 강제병합 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각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큰 변화에 총독부 역시 예의주시한 것으로 보인다.

1913년 8월 전라남도 장관(지금의 도지사)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에게 부군폐합에 관한 의견을 보고했다. 이 의견은 총독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모두 16개항으로 군의 폐합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우선 남평군은 면적이 17방리(사방이 1리가 되는 면적), 호구 수 역시 6400여 호에 불과해 존치할 필요가 없으며, 과거 나주군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나주군에 병합하기로 했다. 창평군과 옥과군이 합쳐 창평군은 그 가운데 12개 면은 담양군, 6개 면은 곡성군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했다. 동북군은 17방리 5600여 호에 불과한 작은 군이기 때문에 능주군과 합병해 화순군에 두기로 했다. 반면 폐합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독립 존치해야 할 지역도 있었다. 군을 유지하려면 면적은 40방리, 1만호 이상이 돼야했지만 광주는 물론 곡성·여수·흥양·장흥·강진·영암·함평·영광·담양·완도 등 11개 군은 이를 비껴나간 것이다. 이들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고, 군의 사무 역시 빈번하며, 지형상 폐합이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호구 수가 1만호 미만이지만 면적이 4만 방리에 이르는 구례는 산악지방이 면적의 10분의 4이고, 전라북도와 경상남도와의 경계를 이루면서 한쪽 면은 섬진강에, 다른 쪽은 곡성군과 순천군의 경계에 접하기 때문에 지형상 폐합할 수 없었다. 면적 및 호수 모두 표준에 미달하는 광양과 진도도 폐합 대상에서 제외됐다. 광양군은 섬진강 동쪽에서 경상남도 하동군과 경계를 이

루며, 서쪽으로는 순천군, 남쪽에는 바다, 북으로는 구례군에 접해 지형적인 요인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진도군은 전남 서남해의 거점이기 때문에 폐합할 수 없다고 전남도는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군의 행정구역이 정해지고 다시 면의 구역 변경이 이뤄졌다. 면폐합의 경우는 그 내용이 상세한 것은 물론 분량도 엄청나 지면을 통해 일일이 소개하기는 어렵다. 그 중 일부를 살펴보면 먼저 광주군의 경우 41개면에서 갈전면과 대치면은 담양군에 편입되고, 함평군에서 편입한 오산면을 포함 40개면을 15개면으로 변경했다. 또 기존의 부동방면, 공수방면, 기례방면을 분할해서 시가지세령 시행지역 외에는 다른 면에 포함시켰다. 곡성군은 원래 8개면이었으나 창평군 일부와 구례군 일부가 포함돼 11개면, 담양군 역시 원래 13개면에 창평군 일부와 장성군 일부가 편입돼 28개 면에서 13개면으로 통폐합됐다. 이와 같이 전라남도 군 이하의 대부분의 면이 주변 면과 합쳐져 그 규모가 커지면서 인구 및 면적이 증가하는 변화가 발생했다.

이러한 행정구역 경계는 큰 변화 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13년부터 1917년에 이르기까지 군·면 폐합 과정을 거쳐 전남은 1부21군1도(제주도)로 구성되게 됐다. 목포부를 필두로 광주·담양·곡성·구례·광양·여수·순천·고흥·보성·화순·장흥·강진·해남·영암·무안·나주·함평·영광·장성·완도·진도·제주도군이 바로 그것이다. 광주가 광역시로, 목포·여수·순천·광양·나주군이 시로 이름을 바꾸고 제주도군이 제주도로 독립한 것 이외에 현재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윤희철 국가기록원 직원

▲도움말 주신 분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이봉수 동강대 건축과 교수

▲이 기사는 국가기록원·광주시·전라남도의 지원으로 작성했습니다.

연말 송년모임 예약 받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요리전문 비즈니스 호텔그 명성 그대로~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 - 2111 (계림동 출플러스 건너편)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과죽이는**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과죽이는**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